

“한화+엘롯기, 가을야구 이번 없다”

〈LG·롯데·KIA〉

방송 해설위원 하반기 판세 전망

한화, 전반기 KIA 최종전 싸움이 LG와 4.5경기 차... 독주 나설 듯 막차 티켓 kt·삼성 대혼전 예상 롯데 가을야구 변수는 투수진

프로야구 2025시즌 하반기 일정이 17일 개시된다. 팀당 85~91경기를 소화해 절반 이상을 마친 전반기는 사상 최초로 700만 관중을 돌파하는 '흥행 휴먼'과 함께 치열한 순위 경쟁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1위 한화 이글스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던 KIA 타이거즈와 3연전을 독식하면서 2위 LG 트윈스와의 승차를 4.5경기로 벌리며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또 '가을 야구' 막차인 5위를 두고도 4위 KIA와 8위 삼성 라이온즈의 승차가 3경기에 불과해 각 팀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프로야구 해설위원들은 우선 한화가 후반기에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최원호 SBS스포츠 해설위원은 15일 연합뉴스에 "주전급 투수들의 부상 이탈과 같은 변수가 없다면 한화가 1위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라며 "후반기 시작과 함께 초반 대진도 좋아서 여기서 치고 나가면 독주 체제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화는 kt wiz와의 4연전으로 하반기를 시작해 두산 베어스, SSG 랜더스, 삼성 등 중하위권 팀들과 계속 대결한다. 허도환 MBC 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 역시 "전반기 마지막 KIA와의 3연전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한화가 3연승을 하면서 2위권과 격차를 확 벌렸다"고 말했다. 이동현 SPOTV 해설위원 역시 "김경문 감독, 양상문 투수코치 등 경험이 풍부한 코칭스태프가 전반기 불펜 등 체력 관리를 잘 해왔다"며 한화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택근 SBS스포츠 해설위원은 "한화 12선발인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가 워낙 좋아서 계속 잘할 것"이라면서도 "장기 레이스에서 아직 2위와의 격차가 그렇게 크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인 선수에



프로야구 해설위원들은 하반기에도 한화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승리를 거둔 후 기뻐하는 한화 선수단. 한화 이글스

대한 의존도가 큰 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짚었다.

'가을 야구'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전반기 1~4위 팀인 한화, LG, 롯데 사이언츠, KIA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진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4위 KIA는 5위 kt에 불과 0.5경기 앞서 있지만 허도환·이동현 위원들은 오히려 중상위권 싸움에서 KIA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현 위원은 "공격 쪽에 나성범, 김선빈 등 돌아올 선수들이 많다"고 기대했고, 허도환 위원은 "이의리·김도영도 부상에서 복귀해서 자기 기량을 발휘하면 진짜 높은 순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예전 기량을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가을 야구' 막차 티켓을 두고는 kt와 삼성이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최원호 위원은 삼성, 이동현 위

원은 kt에 표를 던졌고, 허도환 위원은 kt와 삼성을 모두 언급하며 삼성의 '박빙 우위'를 예상했다.

이택근 위원은 "지금 가을 야구 안정권으로 볼 수 있는 팀은 한화-LG 정도"라며 대혼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원호 위원은 "삼성이 불펜이 약하지만, 공격력으로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동현 위원은 "삼성이 시즌 개막 전 작년에 잘했던 젊은 선수들의 지속성, 불펜의 고령화 문제가 우



폰세 와이스 스키어데일리·연합뉴스

려됐는데 지금 그 두 가지가 모두 해결이 안 됐다"며 하위권 탈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허도환 위원은 "5위 싸움 관건은 삼성이 올라오나, 못 올라오나"라며 키를 삼성이 쥐고 있다고 평가했다.

허 위원은 "kt와 삼성이 5위 싸움을 할 것 같다"며 "삼성이 전반기 마지막 NC 다 이노스와의 3연전에 다 패한 바람에 8위까지 내려갔는데 후반기에 재정비를 잘 하면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의 7년 만의 '가을 야구'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허도환 위원은 "공격에서 신구 조화가 이뤄지며 안정적"이라고 평가했고, 이동현 위원은 "공격의 힘으로 버티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최원호 위원은 "작년 손호영, 율해 전민재, 장두성, 정현수 이런 선수들을 발굴해서 기용하는 김태형 감독의 역할이 크다"고 롯데의 상위권 원동력을 설명했다.

다만 투수 쪽에는 약간 불안함이 있다는 것이 해설위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동현 위원은 "타커 데이비스이나 박세웅의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고, 롱 릴리프 쪽도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택근 위원은 "투수 쪽에 최준용, 알렉 감보아가 전반기 도중 전력에 합류하며 다소 나아졌다"며 "하반기에 박세웅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토트넘 프리시즌 훈련에 참여한 손흥민. 토트넘 SNS 캡처

‘이적설’ 손흥민 웃으며 훈련 복귀

토트넘 시즌 전 트레이닝 양민혁도 나란히 합류

손흥민과 양민혁(이상 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나란히 팀 훈련에 나섰다.

토트넘 구단은 14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프리시즌 훈련을 시작한 지 10일이 지났다. 첫 프리시즌 경기가 임박했다. 이번 주 토요일 레딩과 첫 경기를 치른다"며 훈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훈련 사진에는 반가운 얼굴이 포착됐다. 12일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캡틴' 손흥민이었다.

국내 일정을 마친 손흥민은 팀 훈련 합류를 위해 지난 10일 한국을 떠났고, 토트넘 구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손흥민의 사진과 함께 '잘 돌아왔어, 소니!'(Welcome back, Sonny!)라는 글을 남겼다.

이날 훈련에선 6일부터 훈련에 합류한 양민혁과 손흥민이 함께 훈련을 치러 국내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7월 K리그1 강원FC를 떠나 토트넘으로 이적한 양민혁은 올해 1월 토트넘에 합류한 뒤 EPL에 데뷔하지 못한 채 퀸스파크 레인저스(QPR)로 임대돼 14경기에서 2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펼치고 시즌 종료와 함께 토트넘으로 복귀했다.

양민혁은 토트넘 공식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장 그리웠던 팀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손흥민이 그리웠어요"(I miss Sonny)라며 대선배와 새 시즌에서의 호흡을 기대했다.

2030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우리는 삶을 살며 많은 일을 겪습니다. 희로애락이 뒤섞인 삶 속에서 당연히 행복한 순간이 있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때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력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에서도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2030청춘들이 본인의 삶의 지휘관으로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군인정신'을 발휘해 지금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임관빈 지음 | 308쪽 | 17,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